

2012년 12월 (제 3호)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먼 航海

신석정

푸른

바다와 하늘

그 사이를 네 영주지로 삼은 작은 갈매기야.....

간밤 나라든비에 상없이 긴 네날개 가 또 얼마나 젖었겠니?

수평선을 넘어온 아득—한 수평선을 넘어온

물결들은 오늘도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해안의 바위를 찾아 오건만

그 이야기를 한번도 들어준 일이없는 바위는 진정 냉정한 녀석들이다

강아지 새끼처럼 기어뎛비는 푸른 물결이 황혼을 전별할때까지

그러나 노—란 월견초가 피기전에

나는 해안에 앉아서 바다에 쓰는 나의 해양시를 소리 높이 읊으라하노니

갈매기여—

바다는 아직 한사람의 시인도 손을 대어 본적없는

푸른 원고지가 아니냐!

나의 젊은 해양시인이여!

나는 바다의 푸른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

떠나서 날이 멀은 내푸른 옛꿈의 영농한

진주를 캐어오라 하노니

너는 저—수평선넘어로 나를 데불고 먼 항해를 하지 않으려느냐?

신석정 (辛夕汀, 1907~1974)

1939년 33살의 나이에 「춧불」이 나오자 문단에서는 시어의 조탁, 각도의 참신, 형식의 세련 등 종래의 시를 일변시킨 전원의 서정적 목가시인으로 찬사를 하였다.

석정은 "빈한과 인고 속에서 겨우 결실된 것이 「춧불」이라면서" 청구원 주변의 산과 구릉과 멀리 서해의 간지러운 해풍이 불을 문지르고 지나갈 때 얻은 꿈조각들"이라고 고백하였다. 이 시집에는 <먼 항해>외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아직 춧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이 밤이 너무나 길지 않습니다> 등 초창기의 주옥같은 시 33편이 실려 있다.

출처 : 신석정 문학관(<http://shinseokjeong.com>)

먼 航海

푸른 바다와 하늘 그 사이를 네 영주지로 삼은 작은 갈매기야..... 간밤 나라든비에 상없이 긴 네날개 가 또 얼마나 젖었겠니?

수평선을 넘어온 아득—한 수평선을 넘어온 물결들은 오늘도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해안의 바위를 찾아 오건만 그 이야기를 한번도 들어준 일이없는 바위는 진정 냉정한 녀석들이다 강아지 새끼처럼 기어뎛비는 푸른 물결이 황혼을 전별할때까지 그러나 노—란 월견초가 피기전에 나는 해안에 앉아서 바다에 쓰는 나의 해양시를 소리 높이 읊으라하노니

갈매기여— 바다는 아직 한사람의 시인도 손을 대어 본적없는 푸른 원고지가 아니냐!

나의 젊은 해양시인이여! 나는 바다의 푸른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 떠나서 날이 멀은 내푸른 옛꿈의 영농한 진주를 캐어오라 하노니 너는 저—수평선넘어로 나를 데불고 먼 항해를 하지 않으려느냐?

Contents

Part 01 첫만남 먼 航海	01
Part 02 열린마당 국립해양박물관에 바란다 바다의 생명력 가득한 박물관으로 우뚝 서기를...	03
Part 03 박물관 둘러보기 박물관 전시이야기 2 기획전시 화원의 눈에 담긴 바다	05
Part 04 소장품 이야기	09
Part 05 박물관 사람들	11
Part 06 박물관 교육행사	12
Part 07 박물관 소식	13
Part 08 관람후기	14



열린마당

국립해양박물관에 바란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넉넉한 바다를 주제로 한 국립해양 박물관이 해양도시 부산에서 개관을 하였다.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서 우리의 해양문화를 널리 알리고, 아시아 해양문화의 허브로서 당당하게 항해를 떠나는 박물관의 힘찬 미래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이러한 미래를 위한 당당한 도전에 해양문화의 종합적 전시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감성 충만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도 기대된다.

박물관은 사회와 국가의 문화거점시설이고, 동시에 문화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학습의 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많은 박물관은 대중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용자들이 또다시 박물관을 방문하도록 새로운 계기와 기회를 제공하여 박물관에서 문화적 정서를 키울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오늘날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문화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문화의 재생산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인프라 구축에 DNA 역할을 하고 있는 박물관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동 또한 점차 다양화되어야 한다. 박물관은 박물관 특성 즉 박물관이 속한 지역, 박물관의 소장품 및 전시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목적 다차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박물관이 지역 문화예술 기반의 중심 역할을 하는데 일조할 수 있어야 한다.

전시는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고 교육은 그 아름다움에 대한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아름다움의 성격과 방향이 결정지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전시를 통해 삶, 감정, 종교, 역사를 경험하는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며,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화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때문에 전시가 반영되고 개성과 철학이 담긴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교육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교육 담당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박물관에서 전시를 매개로 한 교육은 관람객과 전시간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그 내용을 보다 쉽고 구체적이며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제공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수혜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감상하며 표현하는 문화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문화 향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박물관 교육은 박물관을 방문하는 다양한 연령이나 수준별 계층에 따라서, 전시가 열리는 시기에 따라서, 전시의 주제나 내용에 따라서, 온갖 세세한 요소 등에 따라서 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이 다양해진다. 같은 전시라 할지라도 그 주제에 따라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궁극적으로 왜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인지와 방향 설정을 통해 의미가 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감상, 워크북, 설명, 체험, 스토리텔링, 역할극, 답사 등 어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없으며 하나의 방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다.

단지 시간과 기타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러한 방법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시연계 교육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시와 교육 수혜자 사이에 놓는 다리의 요소로서 교육의 적합한 방법을 정하고 그것을 재창조하는 표현기법 등을 정함으로써, 유물이나 전시물에 대한 감명을 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 그리고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 등 교육 수혜자에게 전시가 의미 있게 남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새롭게 문을 연 국립해양박물관은 사람의 사고력을 통한 감성의 순화, 새로운 세계관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적 공감대를 이루어야 한다.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의 표현력을 길러주고 새로운 시각과 사고를 넓혀주며 자기발전과 자기 성취를 이끌어내는 박물관 교육 과정들을 통해 유물이 유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장 속에 갇혀 있는 유물들이 각 교육 대상자에 맞춰 재창작되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국립해양 박물관만의 교육을 꿈꿔본다.

이영신(국립광주박물관 학예교육사)

바다의 생명력 가득한 박물관으로 우뚝 서기를 ...

얼마 전 가족과 함께 국립해양박물관을 다녀왔다. 영도에 국립 해양박물관이 개관한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가볼만한 곳이 늘었다는 기대감과 해양도시에 해양박물관이 들어선다는 자체가 특별한 의미였다. 내가 사는 도시 부산에 국립해양박물관이 문을 열었다는 건, 부산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일이었다.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던 탁 트인 전망과 드넓은 야외공간까지 이 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청량감을 주었음이 틀림없고, 다양한 전시실과 볼거리, 만질거리가 있어서 참 좋았던

기억이 난다. 사람에게 자신의 정체감은 태어나서부터 한 가운데 있게 되는 자연환경과 너무나 친숙해서 마치 나의 살 같은 것, 나이 들어서 엄마 품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라 앞으로 세계를 품으며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해양관련 정보와 정서를 제대로 심어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규모와 기대에 비해 수족관이 더 컸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영유아의 입장에서는 체험공간을 더 늘려주어서 기다리는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유아는 오감각을 통해 이 세상을 탐색하고 알아가는 발달적 특성을 지니므로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체험공간이 충분하다는 건 이들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공간이 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바다라는 주제로 직접 만지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체험코너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국립해양박물관은 바다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부산의 몇몇 기관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이다. 예술과 문화체험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향해 오갈 때, 바다를 알고 싶고 느끼고 싶다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곳이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이기를 바라고, 다년간 사람들에게 잘 왔다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앞으로도 꾸준히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공공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런 꿈도 꾀본다. 훗날 이런 일이 현실이 될지도 모를 일이지 않는가? 부산에서 자란 아이가 국립해양박물관에서의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성인이 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할 생명력 강한 깊은 의식 속 저편의 씨앗에 바다라는 정서가 크게 작용 할런지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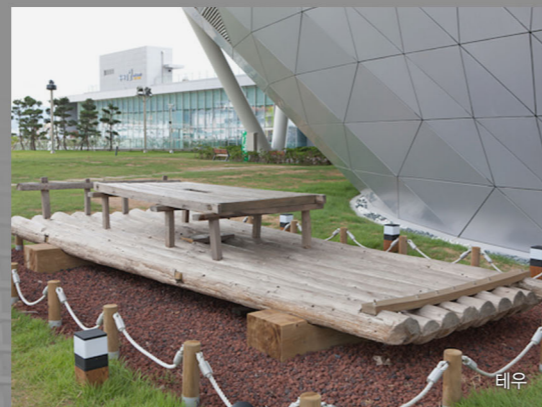
고은미(부산광역시 보육지원센터장)

박물관 둘러보기

박물관 전시이야기 2

국립해양박물관은 타 박물관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외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 박물관에서 바라보는 부산항과 오륙도의 풍경은 국내 최고라고 자부할 만하다. 박물관 야외전시는 주변과의 조화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바다와 접한 우리 박물관 입지에 맞는 야외전시를 기획하여 전시를 추진하였다. 우리 박물관 야외전시는 박물관 주위 조경공간과 박물관 옥상 하늘공원에 이루어져 있다.



해양250호(잠수정)



등부표

조경공간에서는 박물관 내부에 전시할 수 없는 규모가 큰 유물을 위주로 전시하고 있다. 우선 박물관 주차장에 들어서면 거대한 두 개의 앵커가 있다. 앵커는 선박을 한 곳에 머물게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10t, 5t 두 개 모두 기증받은 유물이다.

바닷가 친수호안데크에서 경사로를 따라 양쪽으로 왼쪽에는 녹색등부표, 오른쪽으로 홍색등부표가 전시되어 있다. 등부표는 선박이 항로를 따라 운항할 때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녹색등부표는 수원(水源)으로 항할 때 왼쪽에, 홍색은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음을 알려준다. 이들 등부표들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장비들로, 깨끗이 정비하여 우리 박물관으로 이관하여 설치되었다.

2층 주출입구 앞 광장에는 예쁘게 생긴 노란 잠수정이 있다. 1986년에 건조된 국내 최초의 해양과학탐사용 유인잠수정 해양 250호이다. 연·근해 수중연구조사와 시료채취 등을 위해 개발된 수중 250m까지 잠수 가능한 연구용 잠수정이다. 길이 7m, 폭 2.65m로 중량은 9t이다. 주출입구 옆으로는 제주도의 전통배인 테우가 자리 잡고 있다.

또 하나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요트를 이용하여 세계일주에 사용한 선구자2호가 바다를 향해 능률하게 설치되어 있다. 잠수정과 테우, 선구자2호 등은 바다를 향한 우리들의 개척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들이다.

옥상 하늘공원에는 동·서·남해의 대표적 유인등대를 모형으로 만들어 전시하였는데, 각각 동해의 포항 호미곶등대, 남해의 부산 오륙도등대, 서해의 인천 팔미도등대이다. 포항 호미곶 등대는 1908년 점등한 등대로 지금도 그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오륙도등대는 우리나라 해양관문인 부산항을 오가는 선박들의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등대이며, 팔미도등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모습은 1903년 최초로 점등한 등대와 등대 10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이 건립된 형태를 함께 제작한 것이다.

그 밖에 박물관 앞 회차로에 해군으로부터 대여 받은 스톡앵커 2점과 초계함에서 사용하던 앵커 1점 등이 있다.

우리 박물관 야외전시는 대한민국 건축대상 후보로 오를 만큼 멋지게 만들어진 외관과 어울리게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우주보다도 더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개발하는 장비들을 설치하여 전시함으로써 바다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높여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학예사들이 심혈을 기울여 전시에 임했다. 앞으로 심해탐사 등에 사용된 무인잠수정 실물과 남극조사에 사용된 설상차 등도 확보하여 전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해양박물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형선박을 전시물로서 확보하여 리모델링을 거쳐 선박전시관으로 구성한다면 더욱 멋진 박물관 야외전시가 되지 않을까 한다.



기획전시

갯벌 특별전 기념 칼럼 - 화원의 눈에 담긴 바다

갯벌은 바다와 땅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 만들어진 인류의 위대한 해양문화유산이다. 바다와 산,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는 바람을 매개 삼아 갯벌은 오늘도 무한한 변주곡을 울리고 있다. 잠든 바다를 깨울까 봐 매일 연인들의 속삭임처럼 갯벌은 다양한 생명들의 들숨과 날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시선과 마음을 머물게 한다.

우리의 갯벌은 지구상의 어떤 생태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현실이다.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평가받는 우리의 갯벌은 고통 속에 탄생한 위대한 작품처럼 밀물과 썰물의 끊임없는 고통의 갈무리 속에서 만들어졌다.

갯벌에 사는 어류와 패류는 인류의 중요한 식량자원이며, 인류문명과 함께 시작된 어업은 수천 년 동안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책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선조들은 어류정보를 지리지에 실었지만, 그 내용은 소략하였다.

하지만 성리학 중심의 관념적 사유를 탈피한 실학이 새로운 학문으로 대두하면서, 자연에 대한 지식인의 생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지식인들의 생물에 관한 관심은 자연관찰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의 경지를 넘어 실용적 학문을 토대로 한 박물학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다.

이로 인해 1803년 담정 김려가 유배지인 진해에서 지은 『우해이어보』, 1814년 손암 정약전이 역시 유배지인 흑산도에서 지은 『자산어보』 등 진정한 의미의 어류 전문서적이 발간되어 우리 바다의 생물자원에 관한 본격적 연구가 이루어진다.

반면에 우리 바다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로 새로운 세상을 연 화가가 바로 장한중이다.

옥산 장한중(1768~1815)은 인동 장씨 출신의 화원이다. 인동 장씨는 약 200년 동안 8대에 걸쳐 30명 이상의 화원을 배출한 조선의 대표적 예술가 집안이다.

장한중은 이처럼 6대에 걸쳐 화원을 배출한 자부심 때문에 자신의 인장에 육세화신가(六世畵臣家)라고 새겨 가문의 내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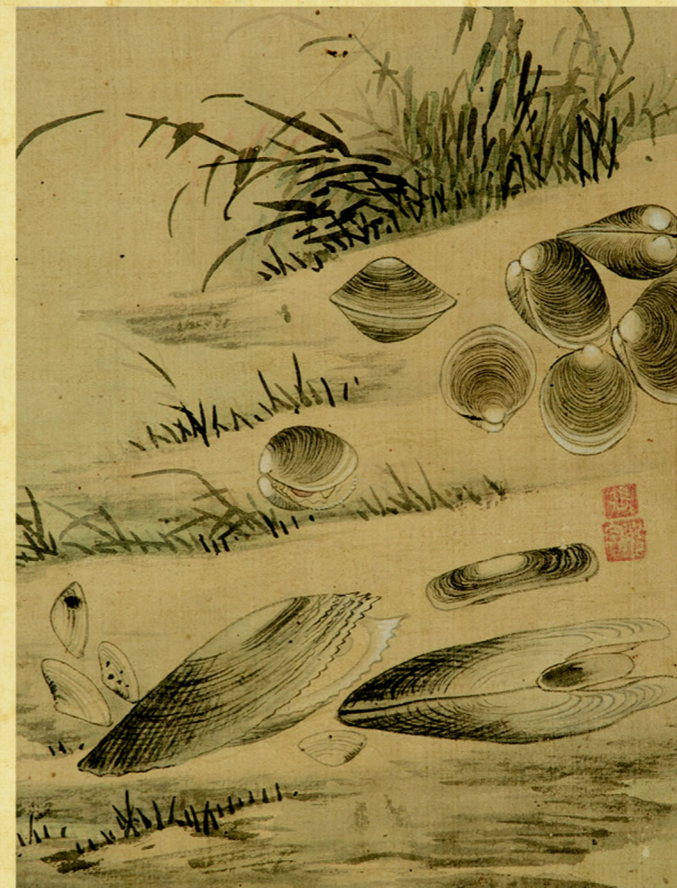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국왕에 의해 화가 최고의 지위인 자비대령화원에 오르는 명예도 얻었다.

장한중의 참된 가치는 다양한 바다 생물을 세밀하게 그려 백과사전적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있다. 유재건은 “화원 장한중은 물고기와 게를 잘 그렸다. 젊어서 송어, 잉어, 게, 자라 등을 사서, 그 비늘과 등껍질을 자세히 관찰하고 본떠 그렸다. 매번 그림이 완성되면 사람들이 그 섬세함에 칭찬 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전통 화가들은 장자의 고사와 관련된 물고기의 즐거움, 당나라 시인 장지화의 시와 관련된 복숭아꽃과 쏘가리, 등용문과 관련된 잉어 등을 소재로 한 문학적 의미의 물고기 그림을 주로 그렸다.

그러나 장한중은 물고기에 대한 박물학적 지식을 토대로 생물의 다양한 자세와 함께 생태적 특성을 표현하고, 그 구체적 모습까지 사실적으로 담으려는 실학적 묘사로 물고기 그림의 획기적 변화를 마련하였다. 그는 어류의 생태적 특징을 잘 보여주기 위해 물고기는 측면을, 갑각류는 배와 등껍질을 정면으로 그리는 삽화적 사상 태도를 취했다. 또한 백과사전의 시각적 이미지화를 위해 다양한 물고기와 조개 그리고 곤충 등을 커다란 화면인 병풍에 담은 새로운 표현법도 유행시켰다.

200여 년 전 한 위대한 해양인의 눈에 비친 바다는 오늘 다시 갯벌을 사랑하는 작가의 시선과 조응하며 또 다른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선창에 펼쳐진 좌판



대나무통발에서 정어를 꺼내는 모습



동삼 하리의 현재 모습

소장품 이야기

사라져 가는 도시 속 어촌의 모습을 남기다.

기증품명 동삼 어촌계 관련 슬라이드 사진 938장
촬영시기/지역 2004~5년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동삼 어촌계)
기증자 박승근(미국 ZUMA Press 소속 외신기자)



동삼 풍어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는 어부

현재 미국 외신기자로 활동 중인 박승근씨는 지난 10월 16일 국립해양박물관에 2004~5년에 촬영한 사라져가는 부산의 마지막 어촌인 영도 하리마을(동삼 어촌계)의 슬라이드 사진 938장을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하리마을은 신석기 시대부터 어업활동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곳으로 역사적으로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어촌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WTO, 산업화로 인한 수산업 구조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어부와 어촌의 규모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박승근씨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과정 속 '하리 어부'에 관심을 갖고 포토에세이 형식으로 동삼 어촌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박물관에 기증한 사진들 중 하리마을 해녀, 풍어제, 목선 사진은 이미 없어졌거나 점차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마지막 기록으로써 가치가 크다.

하리마을에 해녀는 약 100여명정도 등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고령으로 실제 활동은 거의하지 않는다. 해녀들은 본래 제주도 출신으로 보통 16~18살 무렵에 부산으로 시집을 와 영도에서 해녀 일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다. 예전의 부산 어부들은 조업을 나간 길에 제주도 어촌 어부들한테 '아가씨 하나 없소' 하고 물어봐서 신붓감을 얻곤 하였다. 가난한 어부에게 가장 이상적인 신부는 맛벌이를 할 수 있는 여자, 특히 남편이 조업을 나간 사이 물질을 해 돈을 벌 수 있는 제주도 해녀들은 최고의 신붓감이었다. 자식을 도시의 어부한테 시집보내고 싶은 마음과 당시 크게 번성했던 어업의 경제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제주도 해녀들도 영도로 이주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

또한 해마다 매년 3월경에 열리는 동삼 어촌계의 풍어제의 모습도 눈길을 끈다. 동삼 어촌계의 풍어제는 풍어제의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으며 '13년에는 50회를 맞이할 정도로 전통이 있는 민속행사이다. 매년 풍어제는 오전 9시에 부정굿을 시작으로 골매기서낭굿, 조상굿, 세존굿, 성주굿, 손님굿, 군웅장수굿, 용왕굿, 꽃노래굿, 뱃노래굿, 등노래굿, 거리굿(대거리) 등 열두 거리를 진행하며 대개 오후 8시에 모두 끝난다. 열두 거리 중 가장 큰 곳은 용왕굿인데, 풍어 깃발을 게양한 배마다 무당이 직접 올라가서 선주와 함께 풍어를 기원한다. 동삼 어촌계 풍어제는 동삼동 주민과 함께 인근 관계·문화계 인사도 참석하는 하나의 전통문화 행사로, 현대 도시사회의 전통형태 축제로 해석되고 있다.

박승근씨는 이처럼 역사로 남게 될 동삼 어촌계 속의 사건과 인물들의 사진을 기증하면서 "어부의 마지막 세대가 저물어가는 것은 아쉽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강인한 삶을 살았던 어부들의 모습을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그의 기증사진은 국립해양박물관에서 내년 중 전시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백승주(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사)

박승근 약력

- ◆ 1977년 부산 영도 태생, 현재 미국 마이애미 거주
- ◆ 다큐멘터리 사진가, 미국 ZUMA Press 소속 외신기자, 수중촬영전문가
- ◆ 2004년 '초인UDT, 불가능은 없다' 기획탐사 보도사진전 다큐멘터리 대상 수상
- ◆ 2009년 저서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선정
- ◆ 2012년 저서 '여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발표

박물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으나 쉽게 다가서거나 다가갈 수 없는 미지의 세계. 때때로 큰 파도가 휘몰아치는 넓고 넓은 저 바다 밑 수중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사람들의 무한한 호기심과 상상력이 우리 곁에 있는 현재 수족관 형태의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후 많은 시행착오와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며, 오늘날의 수족관 모습이 갖추어졌으며, 필자 역시 그 역사의 굴레에서 한 페이지를 함께 기술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속에서 구현되고 있는 신기한 수중생물들의 생활과 모습들은 우리를 흥분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쩔 저도 이 분야를 10년 넘게 천직으로 생각하며, 더 나은 생물전시를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폐사에 이르며, 특히, 대형생물은 폐사율이 2~3배 이상 높기 때문에 작거나 중간 크기의 물고기들을 운송한 후 일정기간 동안 수족관에서 직접 사육 후 전시하기 때문입니다. 수족관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보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있는 운영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전시생물을 보며 웃음꽃 가득한 관람객을 생각하며, 오늘도 퇴근을 뒤로한 채 많은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결실로 앞으로 1~2개월 후에는 조금씩 변화가는 수족관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수족관 속 가득 표현되는 해조수초 숲, 그리고 그 곳에서 함께하는形形色색의 물고기들. 호기심과 식탐 가득한 푸른바다거북과 살아있는 말미잘과 산호, 또한 진귀한 물고기들로 가득한 국립해양박물관 수족관의 모습을 말이죠.

끝으로, 이 글이 여러분을 만나고 있을 때 쯤 저는 인도네시아 어느 외딴 섬에서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분들께 소개할 예쁜 물고기 채집과 운송을 준비하고 있을 듯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관심과 함께 조금씩 변화가는 수족관의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수족관 속 친구와 나만의 일촌친구 맺기!” 어떠신가요.

이름도 지어주고 친구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자주 와서 응원도 해 주시고요. 때론 힘들 때 물고기 친구와 조용히 이야기도 해 보고요. 재미있지 않을까요?

한정수(국립해양박물관 수족관 관리팀장)

수족관에서 일하며 느끼는 재미있는 한가지 사실은 수족관을 관람하는 모든 이들의 얼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미소를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요. 제 경험으로는 물고기 친구들을 보며 인상 쓰는 관람객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마도 이런 광경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눈에 익숙해져 가면서 아쿠아리스트로의 보람과 의미를 찾아가는 듯합니다. 제가 전시하고 관리하는 전시생물들을 통해 많은 분이 행복해 하시니까요.

저와 국립해양박물관의 인연의 시작은 2009년 무더운 여름 한 통의 전화벨 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울진에서 개최된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기간 동안 울진아쿠아리움 총괄운영 책임자로서 역할을 마치고 부산에 온 지 4일쯤 지났을 때 당시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사의 책임 관계자로부터 박물관에 조성 예정인 수족관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이 곳으로 이직을 하고 볼거리 가득한 수족관을 만들기 위해 땀 흘리며 고민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1년 8월부터 수족관을 위해 15개월가량 쉼 없이 달려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연과 같은 수준의 수족관, 즉 다양한 연출과 전시생물들로 가득한 수족관이 되기 위해서는 2~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전시되는 물고기들이 전 세계에서 운송되는 과정에서

박물관 교육행사

사이언스 바다누리

일 시 | 매주 목요일 16:00~17:30
 대 상 | 초등학교 4~6학년
 인 원 | 15명
 장 소 | 제3강의실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갯벌, 바다로 열린 삶의 이야기」 교양강좌

일 시 | 2012.12.19 ~ 2013.1.30
 매주 수요일 14:00~16:00
 대 상 | 전체
 인 원 | 50명
 장 소 | 제1강의실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HAPPY WEEKEND(주말체험프로그램)

구분	총무공 이순신, 달려라 거북선!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지키자 우리땅 독도!	화석과 함께하는 시간여행	해양생물 돋보기
일시	12월 1, 15, 29일	12월 2, 16, 30일	12월 8, 22일	12월 9, 23일	매주 토, 일
장소	제3강의실(사무동 2층)				3층 수족관 옆
대상	초등학생				6~10세
참가비	무료(재료비 별도)				무료
접수방법	인터넷 선착순 접수				

방과후 프로그램

해양과 과학을 접목시켜 해양과학 전반에 걸친 흥미로운 주제를 제시하여 어려운 과학을 재미있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2월 달에는 '생명의 탄생(세포)'에 대한 주제와, '바다의 나침반, 별'에 관한 수업을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주제	기본내용
12월 06일	생명의 탄생(세포)	세포형성의 원리(밀러실험 분석)
12월 13일		단세포에서 다세포(유전·진화:멘델법칙)
12월 20일	바다의 나침반, 별	별의 생성과 빅뱅이론
12월 27일		별자리(성도)보는 방법

「갯벌, 바다로 열린 삶의 이야기」 기획전과 연계하여, 갯벌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해양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교양강좌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주제	강사
12월 19일	사람과 갯벌	김 준 박사(전남발생연구원)
12월 26일	재미있는 갯벌 생태계	고병설 박사(해양환경관리공단)
01월 09일	생명의 근원 갯벌이야기	손민호 박사(해양생태기술연구소)
01월 16일	갯벌 생물의 세계	황인서 박사(해양환경관리공단)
01월 23일	갯벌, 사진으로 남기기	김영남 박사(해양환경관리공단)
01월 30일	화원이 본 조선의 갯벌친구들	윤종균 학예연구관(국립해양박물관)

박물관 소식



제3회 부산항 빛축제 국립해양박물관 일원에서 개최
2012.11.9 ~ 18

제3회 부산항 빛축제가 국립해양박물관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빛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입체조형물과 루미나리에가 박물관의 밤을 밝혀 많은 분들이 방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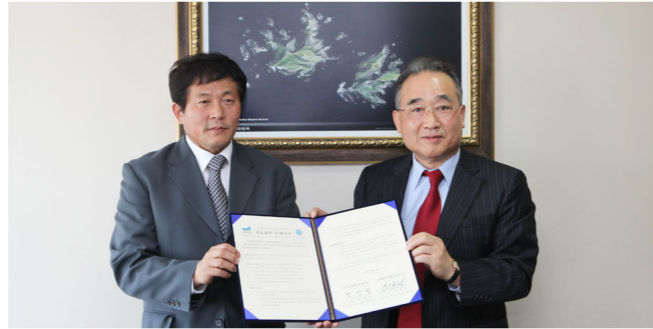
제7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전시
2012.11.13

오는 12월 9일까지 박물관 1층 로비에서 제7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수상작들이 전시됩니다. 주요 수상작 및 전문작가의 작품 총 69점을 통해 미래해양의 의미와 바다의 가치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유아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장 2012.11.22

국립해양박물관을 방문하는 유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장되었습니다. 아가방엔컴퍼니의 지원으로 모유수유에 필요한 수유쿠션, 유아용베개, 모빌 등을 설치하여 더욱 안락한 수유실로 새단장 했습니다. 유모차 10대도 지원받아 대여서비스를 진행하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국립해양박물관 - (재)한국해양재단 업무협약식 2012.11.9

국립해양박물관과 (재)한국해양재단이 '해양관련 콘텐츠 교류 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해양전시분야의 다양화와 국민들의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 우리의 해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마련될 것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과 국회도서관간의 도서기증식 2012.11.21

11월 21일, 국회도서관으로부터 독도 및 영토관련 단행본 등 정부간행물 500권을 기증받고 도서기증식을 개최했습니다. 기증받은 도서는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 등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1층 해양도서관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갯벌, 바다로 열린 삶의 이야기' 기획전시 개막식 2012.11.26

11월 26일, 우예중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인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양맹준 부산시립박물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갯벌, 바다로 열린 삶의 이야기' 기획전시 개막식이 개최되었습니다. 한국 갯벌의 아름다움과 생태계의 우수성을 보여줄 갯벌전은 2013년 3월 31일까지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관람후기(통영답사후기)

이순신이 선택한 땅 통영... (김연경, 동삼초등학교)

10월 27일 토요일날,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첫 현장체험학습을 갔다. 그래서 7시에 일어났는데, 비가 와서 가기가 싫었다. 짜증이 난 얼굴로 버스를 탔는데, 우리반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좋았다. 가다가 간식도 주고, 잠을 자다가 도착을 했다. 첫 번째 체험지는 거북선을 타보는 곳이다. "왜 여기에 왔어요?" 물었는데 오늘은 통영을 학습한다고 하였다. 거북선을 탄다고 하니 기대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설레었다. 노도 저어보고, 대포도 보고, 만지도, 장군의 옷을 입어보았다. "내가 진짜 장군처럼 보이겠지?" 생각을 하며 대포를 들어보았다. 너무 무거웠다. 친구들과 같이 해도 안되었다. 옛날 장군들은 진짜 힘이 세었나보다. 지하에는 식량창고, 잠자거나 생활하는 곳이 있었다. 다음은 세병관에 갔다. 그 곳은 임금이나, 궁에서 신하들이 나오면 접대, 회의를 하는 곳으로서 매우 넓었다.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기를 받았다. 내 소원도 빌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만들었는데, 나무가 아직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깜짝 놀랐다. 기둥도 많이 튼튼했다. 다음으로 향토역사관에 갔다.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는 중앙시장에 들려 밥을 먹고 동피랑 마을을 보고 차에 다시 탔다. 조금 뒤, 배를 타러갔다. 경치가 아주 좋았다. 비가 와서 옷도, 신발도 젖었지만 친구들이 있고 엄마, 선생님들이 계셔서 너무 즐거웠다. 선생님이 지도를 잘 해 주셔서 도착했는지도 몰랐다. 내려서 제승당에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휴식지에서 쉬었다. 우리가 제승당에 못가서 슬픈것을 아는지 바다에서 게가 올라와 위로를 해주었다. 배를 타고 다시 차를 탔는데 선생님이 퀴즈를 내 주었다. 퀴즈를 맞춰서 예쁜 돌고래가 달려있는 볼펜과 상품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 비오는 날에 이렇게 하는 것도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순신 장군, 통영, 거북선 등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깨달았다. 토요일에 심심한데 집에 있지 말고, 이렇게 여행 가는 것도 좋을지 싶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여러 여행을 가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경남 통영을 다녀와서 (양미례,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온 가족비상... 7시20분까지 가야하는데 오늘따라 아빠가 늦장을 부린다. 지체20분... 영도입구 도착하자 선생님 전화. 어머니 오시나요? 헉! 박물관 도착함과 동시에 미안함 맘으로 고개목 숙이고 차량탑승...휴~ 다행이면서 넘 죄송했다. 모든 사람들과 늦었지만 정말 그때 죄송했어요. 이글 보시는분 저희가족 다 기억하실듯...
이젠 기분 좋게 출발!!! 애들에게 동기부여차 미리 이순신 전기문 읽고 나서인지 출발내내 이순신에 관한 얘기만 또 선생님께서 미리 준비해주신 교재는 넘 넘 좋았다. 사실 침 계획하시고 가시는거라 이런준비 못하실까라 생각했는데 참고로 전 견학,체험,답사 많이 다니는 한사람으로... 또 차안에서 틀어주시는 거북선 행방을 찾는 다큐도 애들한테 넘 좋은 교육이었다. 통영도착해서 거북선을 경험하고 세병관으로 세병관은 정말 사방이 트여있어서 애들이 여기서 살고 싶다 할정도로 풍경도 공기도 넘 좋은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향토 역사관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 그리고 12공방에서의 하는 일 등 선생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다. 점심을 먹고 동피랑 마을에서 멋진 벽화들과 사진도 찍고 제승당에 가기위해 여객터미널로 향했다.
제승당에 가기위해 한산도행 배를 타자마자 장대비가 끝도 없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비는 아랑곳하지않고 울 해설사선생님 애들에게 가는 내내 가는길목 섬들에 대한 얘기를 전해주셨다. 드디어 한산도에 도착!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몇몇분들은 선착장에서 기다리시고 우리는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천동소리 들으면서 제승당으로 향했다. 제승당에 도착한 우리는 끝까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설명해 주시려는 해설사 선생님과 동행하며 이순신의 영정을 안치한 영당을 비롯하여, 유허비, 그리고 많은 송덕비와 사정, 수루 등을 보았다. 그중에 활터가 아이들과 나에게 오래 기억에 남는다. 돌아오는길 선생님과 퀴즈도 풀면서 오늘 돌아본 곳을 되짚어 보는 시간도 갖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아이들한테 오늘은 좋은 엄마였지 않았을까? 넘 많은 준비를 해주신 선생님 정말 한분 한분 애들 챙기시는 모습에 감탄. 또 철저한 준비(교재, 선물, 간식, 비옷, 하물며 주차권까지) 같이 나섰던 남편 또한 정말 준비를 잘하신 것같다 며 아침 출발 할때 마음과 도착할때 마음이 완전히 틀려졌다. 다음에 이처럼 좋은 견학이 있다면 또 다시 신청해서 가지 않을까 먼길 움직인 보람을 제대로 느끼는 하루였다.





갯벌,

바다로 열린 삶의 이야기

2012.11.27 - 2013.3.31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 주최  국립해양박물관 NATIONAL MARITIME MUSEUM  KOEM 해양환경관리공단